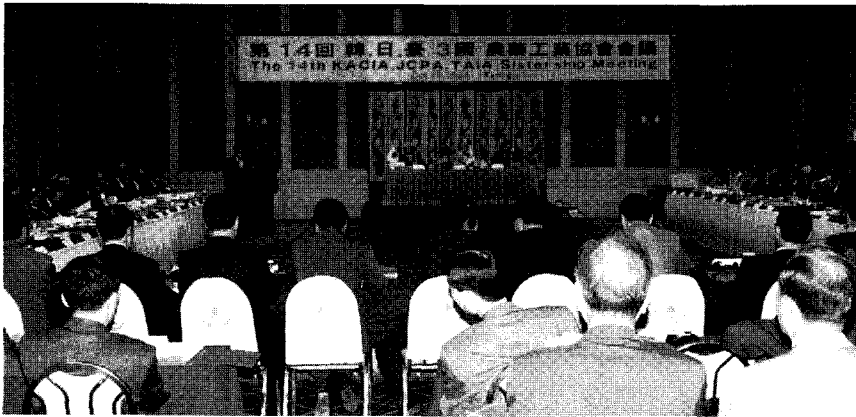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이 당면과제

제14회 韓日臺 농약회의 이모저모



한 국 일본 대만의 농약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업 및 농약산업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농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14회 한국 일본 대만 3국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가 지난 10월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UR 농업합의의 이행으로 농업·농촌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어려운 환경하에 놓여 있으며, OECD에서도 '농약과 환경' 문제에 착수하고 있어 작물을 병해충, 잡초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종합방제(IPM)가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등 농약의 수요전망은 매우 부정적이고 불투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박哲根회장(영일화학 사장) 등 40명, 일본 21명, 대만 14명의 대표와 많은

옵저버들이 참석했다.

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3국의 농업사정은 WTO 체제하의 농산물 교역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식량의 수입론과 자급론이 맞서면서 농민의 영농의욕 감퇴를 초래하는가 하면 환경을 중시하는 그린라운드(GR)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 주장과 대립하는 등 '갈등의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더욱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면서 농약업계도 농민과 농산물 소비자 모두로부터 끊임없는 안전성 시비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의 농약개발은 인축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저약량 고효능 제제 및 천연성분을 이용한 제제의 개발 등 환경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제의 개발이 당면문제』라고 강조했다.

張耀蘇 대만농약공업동업공회 이사장 및 德島秀一 일본농약공업회 회장의 인사 및 각국 대표의 자기소개에 이어 각국의 농업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농업정세보고가 있었다.(상보 참조)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6년간 3국 자매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廉泰根 전 한국농약공업협회 회장에게 3국 회장 공동명의로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다.

내년도 15회 자매회의는 대만에서 예비회담은 4월 17일, 본회의는 11월에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오전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에서 7명, 일본·대만에서 각 5명씩의 위원 및 많은 옵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결과를 보면, 인축에 관한 영향평가기 급만성 독성시험은 3국 모두 원제·완제품에 대한 시험항목이 동일했고 독성구분은 일본·한국은 4단계, 대만은 5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에 이어 가진 특별강연에서는 농림부 박해상 과장이 12월 7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개정 농약관리법에 대해 해설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농업정세보고

JCPA

농작물의 작황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금년 8월 15일 현재의 작황은 작황 지수 101인 '평년 수준' 이고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北일본에서는 '다소 불량' 으로 불릴 만큼 작황이 저조하였다.

과수 작황은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금년 8월 1일 현재의 생산, 출하 예상에 의하면 감귤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 폐원이나 타 과수원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화기 이후의 일기 불순으로 생리 낙과가 많아 수확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123만톤이 될 전망이다. 사과는 4월 이후의 저온으로 개화 및 비대지연, 폐원이나 기타 작목으로의 전환 등으로 결과수가 감소함으로써 수확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94만톤으로 4년 연속 감소가 전망된다.

농약 출하상황

JCPA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95.10~96.9)의 경우 7월까지의 집계는 출하수량 32만8천톤(전년 대비 90.8%), 출하 금액 3천4백5억엔(전년 대비 98.3%)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살충제의 경우 수량 변동이 없는 반면 금액은 증가했다. 살균제와 살충·살균제, 제초제는 수량과 금액 모두 감소했다. 이번 期の 특징은 휴경 목표 10만7천ha 확대의 영향이 수도용 농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1kg 제, flowable제로의 제형 변화가 추진됨으로써 수도용 제초제의 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농약 사용분야별 출하비율(1996)

	수 량		금 액	
	7월 말	전년대비	7월 말	전년대비
	천톤		억엔	
수 도	185	84.2%	1,398	93.4%
과 수	31	98.4%	589	98.6%
채소발작물	83	102.4%	951	103.2%
기 타	29	100.5%	461	104.0%
합 계	328	90.8%	3,405	98.3%

관계 행정의 동향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에 관한 장기 전망」 제시

정부는 95년 12월 2005년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의 수요와 생산에 관한 장기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UR 농업 합의를 바탕으로 농가에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식량자급률의 저하방지를 기본으로 가능한 일본의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내지 확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농업 생산 자재 문제 검토회의」 개최

UR농업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일본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청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생산자재 비용의 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95년 6월, 농림수산성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업 생산자재문제검토회'가 설치되어 비료·농약·농업기계에 관한 검토가 실시되었다. JCPA의 도쿠시마(徳島)회장과 보게쓰(望月)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중간 보고서가 10월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농약비 절감을 위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및 농민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중산간 지역 특산 농작물 등 생산 지원 대책 사업」의 신설

농림수산성은 96년부터 UR 농업 합의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되는 중산간 등 농·산촌지역의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역 특산물을 도입하고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등록 확대를 촉진키로 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추가 설정

최근 30개 농약에 식품중의 잔류기준이 추가 설정되어 총 138개 농약, 130개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었다. 138개 농약중 현재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4개 농약이다. 후생성은 2000년까지 식품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200개 농약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공표

농림수산성은 전술한 104개 농약에 대해 농약취



체법에 따라 농약의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공표했다.

「식물방역법」의 일부 개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아울러 식물 검역 제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조화가 요구됨에 따라 일본의

국제식물검역에 대해 유해동식물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 조치와 신속한 검역 수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물방역법의 일부 개정이 96년 6월에 있었다.

「용기·포장 재활용법」의 시행

일반 폐기물로 배출되는 용기, 포장 가운데 유리 병과 금속 캔, PET병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민간 기업에 위임하는 법률이 97년 4월부터 시행된다.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2000년부터 이 법률이 적용될 예정)

조만간 이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지정법인이 설립되어 용기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용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이 지정 법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재 통산성과 농수성이 국내의 제조업과 도·소매업 약 8만3천개사를 대상으로 용기의 제조량과 이용량, 배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량과 비용의 분담비율 등이 결정된다.

농업정보고

TAIA

농작물 작황

대만지역의 1995년 농업생산총액은 약 3천7백억 NT\$로 전년대비 8.07%증가했다. 이중 농작물 생산액은 45.56%인 1천7백억백만 NT\$로 94년대비

5.02% 증가했다. 작물별 점유율을 보면 과수 32.3%, 벼 23.7%, 채소 21.5%, 특용작물 11.6%, 보통작물 5.7%, 화훼 5.2%순이다.

병해충 방제 실시상황

1995년 수도병충해 발생예찰정보는 114회 발표되었는데 그중 도열병이 36회, 잎집무늬마름병이 34회, 명충 6회, 벼멸구 11회, 기타 27회였으며 멸구류나 이삭도열병 등 주요 병충해 방제면적은 5만 3천ha로 방제율은 91.3%에 달했다.

잡곡에 대한 병충해 발생정보는 총 11회 발표되었으며 페로몬과 농약을 함께 사용하여 1만8천ha의 밤나방과 해충등을 예방했고 루비기생좀벌을 풀어 1만5백ha의 조명나방 피해를 막았다.

농업재해상황

1995년 대만전역에서 한파, 태풍 등 재해로 입은 농작물 손실액은 21억NT\$이며 이중 한파로 인한 손실이 53.8%로 가장 컸고 태풍피해가 40.7%로 두번째였다. 작물별 피해를 보면 배 피해가 28.6%로 가장 컸고 왁스애플이 19.0%, 채소가 13.3%였다.

농약판매현황

1995년 한해동안 농약제품의 판매량은 4만8천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농약판매액은 58억 5천5백만NT\$로 전년대비 0.6%증가했다. 이중 대만 국산제품이 69%, 수입완제품이 31%를 차지했으며 사용대상별로 살충제 38.8%, 살균제 28.7%, 제초제 25%, 기타가 7.5%였다.

1996년 상반기 가공완제품 농약의 총판매량은 1만8천7백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7%에 그쳤고 판매액은 19억5천9백만NT\$로 0.2% 감소했다.

1995년 농약 총수입액은 1억6천9백만 US\$로 이

중 농약원제 수입액이 51%, 농약완제품이 43%, 농약원료가 6%였다. 수입국별로 보면 미국이 27.2%, 일본 18.4%, 독일 12.7%, 영국 8.4%순이다.

농약수출액은 4천5백만US\$이고 수출대상국은 태국이 24.3%, 일본 11.4%, 홍콩이 8.8%였다.

제형별 농약판매현황(1996년 1~6월 전년동기 대비)

제형	판매량	판매액
분제	60.2%	58.8%
유제	111.5%	153.9%
입제	95.1%	76.75
액제	97.1%	93.0%
수화제	101.4%	97.3%
기타	91.3%	88.4%
총계	97.0%	99.8%

관련행정 법령 및 규정

環境保護署는 1996년도 농약업자의 농약 폐용기 회수율 목표를 65%로 고시했으며 농약업자가 대기오염방지 1급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고시했다.

농업위원회는 세관 수입세칙 제38장 주2의 규정에 따라 수입완제품 농약 네거티브 list -면세제외 품목표를 작성하였는데 list에 포함된 물품은 국내에 이미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포함되지 않은 모든 농약품목은 수입시 면세혜택을 받는다.

또한 농업위원회는 1995년 8월부터 대만성 농업약물독물시험소에 위탁하여 농약표준규격검사를 진행했으며 위생서는 1996년 5월 13종의 농약에 총 33종의 작물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정, 1994년부터 지금까지 잔류허용기준이 고시된 농약은 모두 2백84종이다.

1995년도 신규등록된 농약은 25종이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농약은 18종이다. 현재 등록된 농약은 총 5백55종이다. **농약정보**